

## 목포·나주·곡성·고흥군 이어 전남도청도 '철밥통 깨기'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 바람이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도 무능·기피 공무원 선별에 들어가 광주·전남지역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재 무능·기피 공무원에 대해 보직을 박탈하거나 단순 업무로 전환시켜 개선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내 자치단체는 목포시와 나주시, 곡성군과 고흥군 등이다. 또 전남도청을 비롯,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

## “퇴출시킬 공무원 추려라”

### 차지사, 능력 부족·불성실 직원 파악 지시

입한 고흥군은 ▲음주로 인한 무단 결근 ▲공직감찰 적발 등 6개 조항에 해당하는 부적격 공무원 퇴출 계획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실·국장간담회에서 능력부족과 업무 불성실 때문에 동반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04년 취임 직후부터 실무직원 인선 권한을 실·국장들에게 위임해 온 박 지사는 간부들에게 직원의 적성을 고려해 실·국 순환 근무를 권장하는 한편, 동반근무 기피직원들도 함께 가려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직원으로 분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성에 맞는 직책으로 바꿔주거나 단순업무 등을 맡겨 직무태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 퇴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1998년 전국 최초로 전화 불친절 직원 7명을 퇴출시켜 큰 반

향을 불러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지난달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 1천65명의 청렴도와 업무처리능력 등 모두 39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부적격자 20명을 골라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오는 4월 이후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일정기간 근무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퇴출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15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퇴출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긴급 파악에 나서 전면적인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백지영기자 unipark@

## 경영난 때문에...

### 목포서 40대 병원장 자살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종합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7면>

15일 오전 8시50분께 목포시 산정동 7 병원 원장 임모(43·광주시 서구 치평동)씨가 병원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숨져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은 경찰에서 “원장님이 어제 밤에 퇴근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인가적이 없어 들어가 보니 소파에 누워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임씨의 왼쪽 팔에는 전신 마취 시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 ‘베xx’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와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또 옆에는 아내·동생·병원 직원에게 보내는 세 통의 유서가 발견됐다.

임씨는 유서에서 “가족과 동업자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한계에 달한 것 같다”고 썼다.

임씨는 지난 2004년 11월 말 동료 의사 9명과 동업 형태로 병원을 개원한 후, 지난해 9월 대표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병원은 개원 이후 한때 진료과목을 10개과로 늘리는 등 호황을 누렸으나 병원에 투자했던 의사들간에 지분 분쟁이 발생하면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경찰은 원장인 임씨가 병원 빚이 170억~180억원대에 달하는데다,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을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공무원시험 원서접수 북적

2007년 광주·광주교육청 공무원 시험(5월12일)에 응시할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 첫날인 15일 오전부터 몰려들어 광주시청 현관이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 시험은 총 16개분야 259명을 모집하며, 원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南北, 열차 시험운행 합의 실패

### 경협위 실무접촉 이틀째

남북이 15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협위) 실무접촉 이틀째 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을 위한 군사보장조치 방안과 시험 운행 시기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는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 후에 이뤄질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

업을 위한 사전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이 경협위 위원 접촉을

## 社告



## “2012 엑스포는 여수에서”

### 사이클 순례단 19일부터 시·군 돌며 서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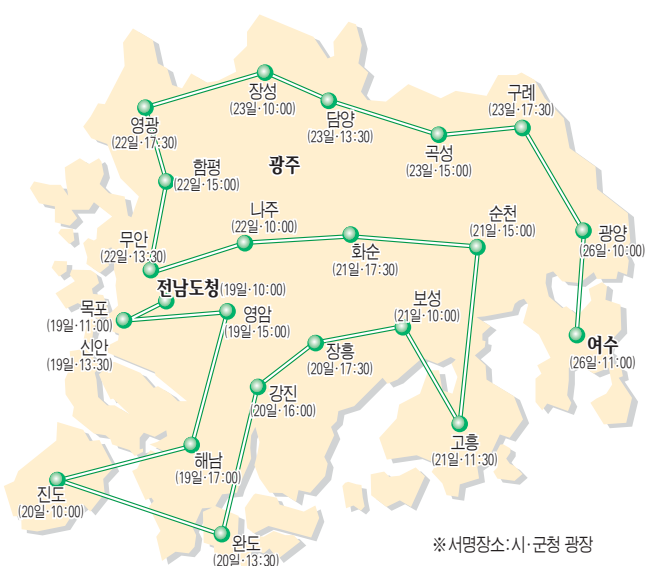


새봄의 대지를 달리는 은륜(銀輪)에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함께 담아 보냅니다.

광주일보사는 지역발전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폭제가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현지 실사(4월 9~12일)를 앞두고 전남도 각 시·군을 순례하는 사이클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전남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 동호회원 40명으로 구성된 사이클 릴레이 서명단은 19일 전남도청 앞 광장을 출발, 각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에 담긴 주민들의 열망은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에 전해져 엑스포 유치에 큰 몫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지지를 위한 릴레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光州日報社

오늘 오전과 오후에 개성 경협사무소에서 갖고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남북 양측이 열차 시험운행 상반기 실시와 이를 위한 군사보장 문제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개시 시점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

서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은 우리측이 의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클링커,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상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합뉴스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심경김

IOPE